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지역산업재산과	과 장 문창진 사무관 송상용	042-481-8621 042-481-866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8년 6월 19일(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6월 18일(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로 ‘기술과 경영’ 두마리 토끼를 잡다.

- '17년 특허전략 지원 받은 294개 창업기업, 총 462억원 사업자금도 확보 -
- 'IP 나래 프로그램' 하반기 지원, 오는 6월 29일까지 접수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역 창업기업의 지재권 역량 성장 프로그램인 'IP(Intellectual Property) 나래 프로그램'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294개 창업기업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 특히 이들 기업들은 특허 경영 전략을 통해 정부기관의 사업화 지원, IP 금융, 엔젤투자 등으로부터 총 462억원의 사업자금까지 확보했다.

< '17년 'IP나래 프로그램' 수혜기업의 사업자금 확보 현황 >

	정부기관 자금지원 ¹⁾	기술금융 등 융자 ²⁾	외부기관 투자 ³⁾	합 계
기업 수 (A)	97개社	32개社	41개社	
지원 금액 (B)	199억원	90억원	173억원	462억원
기업당 평균 연계금액 (A/B)	2.1억원	2.8억원	4.3억원	

1) 자금지원 자금지원 : TIPS 등 정부기관 자금지원 연계

2) 기술금융 등 융자 : 기술보증, 신용보증 등을 통한 금융기관(농협 등) 융자 연계

3) 외부기관 투자 : 삼성전자, 포스텍, 인포뱅크 등 민간 투자 유치

□ IP 나래 프로그램은 16개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전문 컨설턴트가 IP기술전략 및 IP경영전략에 관한 밀착 컨설팅을 지원한다.

- 이를 지원받은 창업기업은 기업성장을 주도할 유망 기술 도출, 강한 특허 창출, 특허 경영 전략 등 기업의 지재권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된다.

□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스타트업 A기업은 “IP 나래 프로그램을 통해 특허출원도 지원 받았지만, IP 금융 컨설팅을 통해 실제 1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IP 나래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전반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창업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한 특허 창출뿐만 아니라 특허를 마케팅, 기술거래, 투자유치 등에 활용하는 특허 경영 전략도 필요하다”라며, “전문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지역의 창업기업들이 특허 창출과 특허 경영 역량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IP나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 한편, 상·하반기로 진행되는 ‘IP 나래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하반기 사업 참여를 원하는 창업기업은 오는 6월 29일까지 기업소재지의 지역지식재산센터(대표전화 : 1661-1900) 또는 홈페이지(www.ripc.org)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송상용 사무관(☎ 042-481-86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IP 나래 프로그램 설명자료

◆ 창업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IP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 시장 진입 및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원

□ 사업개요

○ (예산) 5,586백만원(420개社 × 38백만원 × 35%*)

* 특허청 35%, 지자체 35%, 창업기업 30%

○ (지원대상) 기술 기반 창업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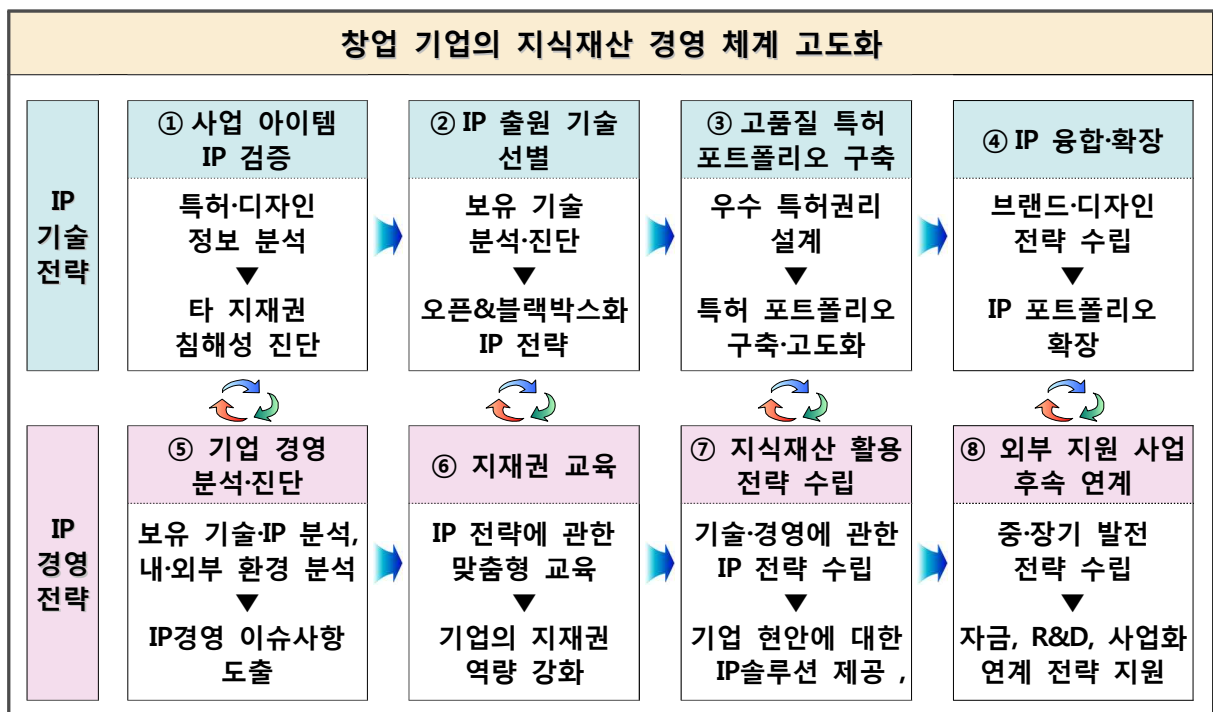
○ (지원목표) 420개社 (연 기준)

○ (과제 수행기간) 3개월 내외

○ (선정방법) 사업공고 후 신청한 기업 중 심사를 거쳐 수혜기업 선정 (당해 연도에 동일기업 중복지원 불가)

* 심사기준 : 기술의 혁신성(20점), 성장 가능성(25점), IP 지원 필요성(30점), 수혜기업 참여의지(25점) (타 부처 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선정 시 우대)

□ 지원내용



- ① (사업 아이템 IP 검증) 창업기업의 주력 사업 아이템에 대한 특허·디자인정보를 분석하여 IP 동향을 파악하고 타 IP 침해 여부 검토
- ② (IP 출원 기술 선별)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정밀 분석·진단하여 지재권으로 보호할 기술과 비공개할 기술을 선별
- ③ (고품질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주력 사업 아이템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핵심·주변특허를 설계하고 출원하는 등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고도화
 - * 국내 특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축을 추진하되, 필요 시 해외 특허도 가능
- ④ (IP 융합·확장) 시장 맞춤형 IP 융합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디자인·브랜드 권리 획득에 관해 타 지원 사업* 연계
 - *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브랜드·디자인 창출 지원
- ⑤ (기업 경영 분석·진단) 창업기업의 내·외부 환경 및 보유 기술·IP를 분석하여 기업의 IP경영 이슈사항 도출
- ⑥ (지재권 교육) 도출된 IP경영 이슈사항에 관한 맞춤형 지재권 교육 제공
- ⑦ (지식재산 활용 전략 수립) 창업기업의 기술·경영에 관한 IP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이슈사항*에 대한 IP 솔루션* 제공
 - * 특허분쟁, 기술거래, 기술보안, 기술협약(MOU, 실시권 계약 등) 등
- ⑧ (외부 지원사업 후속 연계) 우수 사업아이템은 자금·R&D·사업화 지원의 정부(또는 민간) 사업으로 후속 연계

□ 추진일정

○ IP 나래 프로그램		
수혜기업 발굴 및 지원(1차)	'18.2~'18.7	주관기관
수혜기업 발굴 및 지원(2차)	'18.6~'18.11	주관기관

붙임 2

IP 나래 프로그램 '17년도 성과

- 294개 창업기업에게 맞춤형 IP 기술경영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 전략 제공 ⇒ **신규고용 439명(기업당 1.5명*)** **창출, 사업자금 연계 총 462억원**

* 지방 창업기업의 규모(매출zero 기업 28%) 및 인력(1인 기업 26%)이 영세한 점을 고려하면 수혜기업당 1.5명 신규고용은 매우 우수한 성과

- IP 전략 없이 창업에 뛰어들어 창업기업의 생존을 제고를 위해 창업기업 특화형 컨설팅 294건 실시
- (매출액 및 고용 실적) 지원받은 기업(294개)에서 총 804억원(기업당 2.7억원) 매출 상승, 총 439명(기업당 1.5명) 신규채용
- (사업자금 연계) 총 462억원(기업당 1.6억원) 자금지원 연계 및 투자 유치

< '17년 수혜기업의 사업자금 연계 실적 >

	자금지원 연계 ¹⁾	기술금융 등 융자 연계 ²⁾	외부기관 투자 유치 ³⁾	합 계
기업 수 (A)	97개社	32개社	41개社	
지원 금액 (B)	199억원	90억원	173억원	462억원
기업당 평균 연계금액 (A/B)	2.1억원	2.8억원	4.3억원	

1) 자금지원 연계 : TIPS 등 정부기관 자금지원 연계

2) 금융기관 융자 연계 : 기술보증, 신용보증 등을 통한 금융기관(농협 등) 융자 연계

3) 외부기관 투자 유치 : 삼성전자, 포스텍, 인포뱅크 등 민간 투자 유치

◆ (사례 1) 창업기업 A社 : IP활용 자금 확보, 판로 확대

- (지원 내용) 유사기술 및 경쟁사 기술 분석을 통해 기업의 유망기술 도출, 영업비밀 보호 전략 지원, 기술이전 전략 지원, 경기도·용인시·한국외대 등 판로 지원 등
- (성과) 매출 0.7억원 및 고용 3명 증가('16년 0.3억/4명 → '17년 1억/7명), 특허기술 크로스 라이선싱 4건, 엔젤투자 1.3억원 유치, 경기도·용인시·한국외대 사업 수주

◆ (사례 2) 창업기업 B社 : 보유기술 고도화, 실시권 계약 보완

- (지원 내용) 타분야 기술을 개량 적용하여 신규 특허 창출, 제휴업체와의 실시권 계약서 점검 및 보완
- (성과) 매출 80억원 및 고용 2명 증가('16년 20억/8명 → '17년 100억/10명), 베트남 교통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철도/교량 프로젝트에 납품)